

“제3지대 위협적” 민주 개헌저지 문건 논란

싱크탱크, 대선후보 文 가정해 작성...지도부 등에 보고
秋 “지시한적 없다” 해명에도 당 초선·개헌파 반발 확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일부 유력주자에 편향된 ‘개헌 저지 보고서’를 만들어 특정 계파 의원들에게 열람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당내에서는 ‘친문’(친문재인)과 ‘비문’(비문재인) 사이 갈등이 재점화 되는 분위기며 국민의당 등 개헌에 찬성하는 진영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추미에 대표 등 당 지도부는 3일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 없다”, “참고용”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당내 비문 성향 초선 의원들은 “당의 분열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장, 초선의원 20여명은 성명서를 내

고 당 지도부에 “당 대선의 공정한 관리 책임자로서, 이 문건의 작성, 배포 경위 등 진상 조사와 관련자 대책, 재발방지대책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김성수·박용진·김병욱·이훈·최명길 등 초선의원 5명과 함께 면담하고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에는 국회 개헌특위에 4년 중임제에 긍정적이거나 비슷한 입장을 가진 의원을 다수 참여시키고 적극적 개헌론자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자의 특위 참여를 소폭 수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제3지대가 구축된다면 민주당의

2017년 대선 승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대선 전 개헌 논의 반대론에서 전략적 수정을 시도해 사전 차단 또는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반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결함·결집한다면, ‘비문 연합과 문 전 대표’의 선거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개헌과 관련한 당론을 결정하면서 어느 한 주자에게 부담이 솔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가 쏠림 민심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란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현 상황에서 개헌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던 문재인 전 대표를 당 싱크탱크가 지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용익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정도에 앞으로 개헌 문제가 대두될 것이니 지도부가 참고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작성된 것”이라며 “편파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문건의 파장은 정치권내의 개헌파의 반발을 부르며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개헌 저지 문건과 관련, “사실이라면 세월호 특조위에 세월호 조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심어 고귀한 생명을 놓고도 당리당략만 쫓는 죄를 저질렀던 새누리당과 다를 게 뭐냐”고 강력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 대선후보 경선 규정(논의)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과 함께 개헌 전략 보고서는 비열한 행동이라 생각한다”며 “문재인 전 대표의 뜻인가 요”라고 날을 세웠다. /임동욱기자 tuim@

박지원 “비박·반기문과 연대 시기상조...민주와 통합 불가”

광주 5·18묘지 참배...“4월 정치권 빅뱅 있을 것”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3일 “비박”(非 박근혜) 계열과의 제3지대 연대는 시기상조이고, 현재 탄핵 후 4월께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의연대설에 대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거리를 뒀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정가의 뜨거운 화두인 제3지대 연대론과 다당제 속 정치권 재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비박 연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정당, 공화당, MB, 박근혜 등으로 이어져 정체성이 (국민의당과) 많이 다르다. 탄핵에 동조해준 것은 인정하지만 정체성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연합이나 연대는 아직 빠르다. 지금으로선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 전 총장에 대해서도 “뉴DJP 연합 얘기도 나오고, 대화도 많이 하지만 정체성이 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하는 건 성급하다”며 “귀국 후 곧바로 연대하는 것 역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비박, 반 전 총장 모두에게 일정한 거리를 둔 셈이다.

그러면서도 “호남은 정치적 가치와 정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비박 연대 등에 대해) 지금은 상당한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나 마지막 순간에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당제로 호남이 연결할 수 있는 길이 트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날 지는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손학규, 반 전 총장, 비문 진영 속에서 또 다른 신당이 태동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같다”면서 “오는 4월께 현재 탄핵 심판 이후 정치권 빅뱅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는 “그것만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호남당으로 전략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다당제 아래선 호남당이 부끄러운게 아니다. 오히려 당당해야 한다. 호남만으로 (정권 교체 등) 어렵겠지만, 호남 없이는 어렵다”고 호남의 정치적 입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호남의 가치를 지키고, 호남의 몫을 지키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당을 키우고, 당원을 섬기고, 당의 대선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일명 ‘쓰리고(GGO)’ 작전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며 “흐르는 물을 막을 순 없다. 마지막이라도 깨끗한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한 뒤 “일부에서 야권의 통합, 후보 단일화 등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의 다당제 시스템에서 옳지 않다”며 문 전 대표의 야권 통합 발언에 대해 반대 뜻을 나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박지원 의원이 3일 광주시 북구 운정도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 앞에서 헌화·분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친박 vs 비대위 정면충돌

서청원 “몰아내는게 쇠신이나”...인명진 “무례하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에 대한 ‘인적청산’ 문제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3일엔 인명진 비대위위원장과 친박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몸이 아파 잠시 쉬었던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에 복귀하자마자 친박계 중진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초선 의원 등을 모두 만나는 광복 행사를 선보이면서 애초 예고했던 인적청산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박계 핵심들의 반발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전날 당내 최다선(8선)인 친박계 서청원 의원이 ‘임기가 3년도 넘게 남은 국회의원들을 철차도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올바른 쇠신의 길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낸 점을 겨냥, “저도 그 편지(입장문)를 봤는데 당 대표에게, 인간 인명진에게 무례한 일”이라면서 “자신들도 신문을 보고 여론을 들을 것이다. 스스로 책임을 져달라는 게 독신이나”라고 반박했다.

인 위원장은 또 인적청산을 위한 탈당 대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었으나 현재의 새누리당 상태를 ‘악성종양’에 비유하며 “(종양의) 핵만 제거하면 악성종양이 번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스스로 증상을 나타내더라”라고 우회적으로 인적청산 대상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언론인과의 간담회 직후 곧바로 정갑윤 의원,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친박계 인사들을 만나 자신의 인적쇠신안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도 인 위원장은 원외당협위원장들과 초선 의원들을 차례로 면담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조·재선 및 3선 의원 일부에서도 친박 강성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인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다. 특히 이정현 전 대표 한 사람의 ‘용단’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서청원 의원은 “인 위원장이 당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던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으므로 약속을 어긴 인 위원장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인 위원장의 ‘무례하다’는 비판에 대해 “금도를 벗어났다”며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라”고 맹비난했다. 최경환 의원도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새누리당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전남도당위원장 3파전

윤영일·이용주·정인화 7일 경선...광주 권은희 단독 출마

국민의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은 윤영일(해남·완도·진도)·이용주(여수·갑)·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또 국민의당 광주시장위원장 경선에는 권은희 의원(광산읍)이 단독 출마, 경선 없이 시장 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의 경우 모두 초선이어서 한지 양보 없는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반면 윤·이 의원은 정치신인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전남 서남권, 이 의원은 정 의원은 동부권 출신이어서 지역간 대결도 흥미를 끄나 20여개월 동안 중앙 정치권에서 보여준 능력과 지역소통 능력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선전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후보들 간에는 벌써 흑색선전이 나도는

등 혼탁경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전남도당은 오는 7일 오후 2시 보성 다항체육관에서 개편대회를 열어 신임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날 경선은 4만4600명가량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사전 투표와 923명가량 대표당원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신년인사를 통해 “국민의당은 광주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함께 호흡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창당했다”며 “국민의당 광주시장위원장으로 나서서 국민의당이 광주의 미래와 광주 시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힘을 모으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당 광주시장 개편대회일도 오는 7일이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첨단 사무실 임대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010-7384-7800

상가매매 전문

① 수완지구 3층 건물 어룡신협 앞
토 97평 건 145평 / 1층 (골프매장) 2층~3층(상가)
▶매가 16억 8천 (용 5억) 보 1억 월 700만

② 노대지구 (3층) 대단위 아파트 (코너자리)
토 251평 건 433평 1층 (식당/미용실) 2층 (식당/상가)
3층 (오피스텔 - 13개) (보1억6천 월 1천300만) ▶매가 27억

③ 월산동 (3층)상가 매매 (농성역 / 힐스테이트 5분)
토 132평 건 404평 1층 (문방) 2층~3층(상가)
4층~5층(독서실) 6층(주택) ▶ 매가 22억

④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올리모델링 완비) (주차완비)
45평 보 1억 월 60만 ▶ 매가 1억4천만 (용5천)

⑤ 상무지구 오피상가 매매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9평) 보 500만 월 40만 (용 2천4백만)
▶ 매매 6천9백만

⑥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 전원주택 최고 위치
▶ 매가 8천만

⑦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윅,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보증금 500만

⑧ 서구 쌍촌동 일몰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⑨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 전망 훌륭,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매가 3천 5백만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서구매월동 (장례식장)
토 2,911평 건 1,363평
현 장례식장 운영
서광주역 1분
▶감정가 110억 → 최저가 110억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복합 상가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58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톨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접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첨단지구 식당임대

◆ 한우식당 장어집 강력추천 !!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첨단 메가박스
첨단 산업단지 1분
삼성전자 정문 앞

★ 보 5천
월 300만

커피숍 임대
전대 정문

북구 중흥동 모아아파트 후문
코너자리

* 평수 - 15평

◆ 올리모델링
즉시입주가능

★ 보 2천
월 60만

☎ 010-7384-7800
010-6670-9800

평택 투자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 120만평
▶ 110만평

브레인시티/평택항 개항/미군부대 이전

☆ 평택 매주 출발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로 모십니다.

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역 5분!! 송탄사거리 1분 !!

● 평수 1,610평
총 7필지분할
(토목공사 완료)

● 최고 입지 조건
(개발시 손수익 5억!!)

※1필지 200평 →
1억투자시 가능

☎ 062-511-7800
010-6832-9700